

‘민선 9기’ 광양시, 현장 중심 소통행정 확대

‘찾아가는 소통시장실’ 운영...민생 곳곳 시민 목소리 청취
박성현 시장 “문제 해결 출발점 ‘현장’...가까이서 듣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최근 민선 9기 첫 ‘찾아가는 소통시장실’을 운영하고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결된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 6곳을 찾아 현안을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소통시장실은 기존의 ‘찾아오는 민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박성현 시장은 옥룡 추산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월면 차량 전복에 따른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장, 운동주·정병옥 문화관 건립사업, 성황근린공원 숲 놀이터 정비사업, 마동근린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등 6개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옥룡 추산 급경사지 붕괴위

험지역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급경사지 지정 경위와 재해위험도 평가 절차, 패널옹벽 설치 등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낙석과 사면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박 시장은 공사 중 낙석과 토사 유실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와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어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찾아 주요 공사가 완료된 하천 구간과 시설물 관리 상태, 남은 행정절차 등을 점검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생태계 회복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박 시장은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질·생태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차량 전복에 따른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있었던 진월 현장을 방문해서는 방제작업 결과와 하천 수질, 주변 농경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물고기 폐사나 오염물질의 농경지 유입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는 향후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방제작업 이후에도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집중호우 시 잔류 오염물질이 하천과 농경지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현 시장은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소통시장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시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과 시민 생활 현장을 찾아 현안을 살피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박성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장은 민선 9기 첫 ‘찾아가는 소통시장실’을 운영,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돌며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청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곡성 청년시민학교, 13건 발굴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2026년 곡성군 청년시민학교’를 운영하며, 2027년 신규 시책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13건을 발굴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 청년들은 곡성군의 정책 이해 교육과 사례 학습, 현장 워크숍, 팀별 토론회를 거쳐 실제 행정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제화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열린 최종 토론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정리하고 신규 정책을 보완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여 청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곡성가치 레벨업, 청년 취미강사 육성사업, 곡성 리본 맛집 인증제, 소상공인 디지털 홍보교육, 마라톤 대회 개최 등 총 13건의 사업을 제안하기로 했다.

청년시민학교는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자들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시민의식과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청년시민학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광양, 광영하수처리장 여과분리막 정밀 세정

사업비 5억 투입...신품 대비 70~80% 성능 회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광영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총 5억원을 투입해 생물반응조의 노후 여과분리막 교체와 정밀 세정을 완료했다.

생물반응조의 여과분리막은 하수처리 공정의 핵심 설비로, 안정적인 처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세정과 노후 분리막 교체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분리막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노후 분리막 교체와 기존 분리막 정밀 세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정비를 마무리했다.

정비 결과 분리막의 성능이 크게 회복되며 세척 전 분리막의 청수투과량은 분당 130~180㎖ 수준이었으나, 물세척과 유기물·무기물 세정을 거친 후 분당 730~8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수투과량은 깨끗한 물(청수)이 분리막을 통과하는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과막의 성능 상태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신품 분리막의 청수투과량이 분당 93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밀 세정을 통해 기존 분리막의 성능이 신품

대비 약 70~8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핵심 설비인 분리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정밀 세정을 통해 안정적인 수질 관리와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영공공하수처리장은 1983년 3월 건립된 후 2011년 11월 처리용량을 증설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00t 이상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진도, 분만취약지 노후 의료장비 교체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 분만취약지 노후장비 교체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분만 취약지역의 노후한 의료 장비를 교체해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도군은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입해 진도한국병원 산부인과의 초음파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초음파 장비는 임신 주기별 산전 검사와 고위험 임신의 조기 발견, 태아 이상 진단, 부인과 질환 진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소의 임신부 등록관리사업, 모자 보건사업과 연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의료진 교육과 장비 운영체계를 구축해 검사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장비 교체를 통해 고위험 임신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기에 삼급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부인과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가능해져 여성들의 의료 접근성과 진료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며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산전 진료와 부인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은 물론, 여성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분만취약지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장흥, 하천 하상굴착·양수기 이용 농업용수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최근 가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내 복류수를 활용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에 나서고 있다.

하천 하상굴착은 하천 바닥을 굴착해 지하로 흐르는 복류수를 확보한 뒤, 전기 모터와 양수기, 송수호스를 활용해 인근 농경지에 직접 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저수지 및 수리시설만으로 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여

건과 농업용수 수요를 확인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은 읍·면 및 지역 농업인과 긴밀히 협조해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굴착기 장비지원과 양수기, 송수호스 등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자연 느끼며 몸과 마음 치유해요”

순천, 1박 2일 ‘정원웨케이션 치유캠프’ 선착순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정원웨케이션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인 ‘2026 정원웨케이션 치유캠프’ 참가자를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숙박·식사·정원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8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동안 가족형, 청년형, 기업형(단체) 등 참가자를 특성별 그룹화해 운영하고 AI 활용 워크숍, 넷워킹, 요가·명상, 정원 체험, 사운드 워킹, 식물 표본 클래스, 커피 테이스팅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족형과 청년형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 및 공식 SNS에 게시된 신청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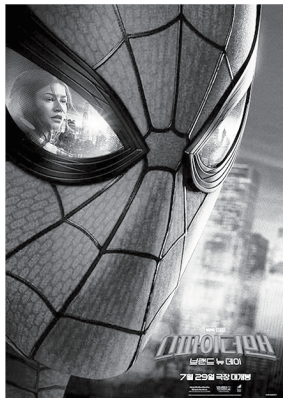
업형은 전화(061-751-5530)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5만원 또는 6만5000원으로 대상 및 숙소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숙박, 식사가 모두 포함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